

함승희 前 강원랜드 대표가 강원랜드서 열린 음악회에서 지휘자로 깜짝 변신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다.



2016년 2월 25일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2016 세계명상대전 모습.



2016년 2월 25일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2016 세계명상대전에서 인사말을 하는 함승희 前 강원랜드 대표.

"걸으면서 사유 성찰, 불교명상 매력"

'함승희 변호사' C1면에서 계속

Q. 2008년 5월 '포럼오래'를 만들었습니다. 설립 취지문에서 '대한민국은 자유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시장만능주의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경제적 병리 현상들을 바로 잡아야 국가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어떤 모임이며 현재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요?

A. 오늘의 문제를 분석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준비한다는 뜻의 오래포럼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개방적 소셜네트워크를 지향합니다. 학연, 혈연, 지연, 직장, 종교 등을 인연으로 하는 폐쇄적 네트워크는 패거리문화로 이어져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부정부패를 조장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래포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민주엘리트를 양성합니다. 오래포럼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를 개발하고, 다양한 회원들의 토론과 평가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는 집단지성입니다. 또한 인간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증진시킴으로써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책임 공동체입니다.

3년 전부터는 포럼의 기본 가치인 자유주의, 번영, 작은 정부, 강한 국가 등 포럼의 4대 지표에 부합하는 도서를 선정해서 유튜브로 저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미래는 국민의 수준에 달렸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각성하고 대중을 계몽하려는 것이죠.

Q. 2012년 포럼오래의 첫 번째 책 〈세상을 바꿔라〉 발간 이후, 국가운영을 위한 통치구조와 제도, 정책을 다룬 두 번째 시리즈에 이어, 국가개혁을 위한 각론적 주제를 중심으로 한 〈세상을 바꿔라 II〉도 펴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개혁적 사고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개혁주도 세력도 없고 한 시대의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A.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제가 늘 주목하는 것은 국민의 수준입니다. 100년 전 일본이 문화적으로 우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크게 발전하게 되고 우리는 그들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과의 격차가 여러 방면에서 존재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문제의식을 지닌 객관적인 역사관의 부재와 스스로를 제대로 평가하는 문제의식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식의 변화는 지배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수준이 곧 국가의 수준인 것이죠. 결국 세상이 바뀌는 문제는 우리 국민이 바뀌는 것으로,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첩경이고, 오래포럼이 그런 역할을 하자는 것이죠.

일본과 우리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의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아주 오래 전(메이지 유신)부터 번역서 출간사업, 독서권장 등 국민의 지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Q. 2014년에는 강원랜드 대표로 취임합니다. 가장 먼저 임직원에게 던진 화두가 '인무원려난성대업(人無遠慮難成大業)'이었죠. 안중근 의사가 중국 뤼순 감옥에서 쓴 이 글귀는 '멀리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아마도 당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강원랜드 임직원이라면 10~20년을 내다보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결과적으로 임기동안 이 소신이 잘 반영됐나요?

2008년 집단지성 '포럼오래' 설립
"국가의 수준 국민의 수준에 달려"

2014년 강원랜드 대표로 취임해
2016년 세계명상대전 개최 성황
명상대전에 3백여스님 무료초청
하늘길에 고승 핸드 프린팅 설치

대학시절 상원사·청평사서 공부
서산지청장 때 만공탑 매일 참배
"불교, 모든 중생 무차별한 종교"

A. 강원랜드의 취지는 '폐광'이라는 갑작스러운 시대적 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대안 없이 힘겨워해야 했던 해당 지역의 30만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현실만을 보지 말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고 실천하자는 뜻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카지노'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여러 차원으로 확장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겠다는 생각에 가 닿았던 거죠. 그래서 '운탄고도'도 추진하고 합작투자를 통해 가족 단위 참여 문화공간으로 강원랜드의 정체성을 확장시키려고 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비전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저명인사를 초청해 특강도 했죠.

강원랜드를 '카지노가 있는 곳'에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힐링 명소'로 탈바꿈하는 데 주력했어요. 북카페도 만들고 연초에는 신년음악회, 연말에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하고 여름에는 매일 밤 산상카페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그림, 붓글씨, 사진 등 각종 전시회를 열어 언제 오더라도 볼거리가 끊이지 않는 복합리조트로 변모시켰어요.

Q. 2016년 2월에는 연인원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명상대전을 개최하며 명실공히 힐링 문화 리조트로 거듭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카지노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런 진풍경이 연출될 수 있었나요?

A. 강원랜드는 가족단위의 고객이 즐겨찾는 리조트로 명상과 수행을 하기에 적당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빼어난 자연환경과 양명한 기운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세계명상대전은 강원랜드가 명상과 힐링의 최적지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또 강원랜드의 주력 사업 분야가 카지노이다 보니 다른 일반 기업의 사업들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박 중독'이죠. 그래서 '명상'과 같은 아이템은 강원랜드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에 세계명상대전준비위원회와 함께 명상을 통한 도박중독 치료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방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죠. 세계명상대전 당시 300여 스님들을 무료로 초청했고, 하이원리조트 하늘 명상길에 동판 표지 안내판으로 혜국 스님, 아잔브람 스님 등 불교 고승 핸드 프린팅 영구 기념물도 설치했습니다.

Q. 불교와의 인연이 깊으신걸로 아는데 실제로 언제부터였나요.

A. 할머니가 절에 다니셨고요. 제 자신이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대학생 때 절에 공부하러 들어간 것이죠. 당시(1970년대)는 시대상황상 휴교령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갈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고시 준비차 절을 찾았죠. 아마도 그때부터 불교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춘천 상원사에도 있었고요. 소양호 근처 청평사에서도 고시공부를 했죠. 특히 서산지청장 시절에는 수덕사 경내에 있는 만공탑에 거의 매일 올라갔었죠. 제가 경허 스님 만공 스님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서산지청장으로 발령받고 가보니 인근에 예산 수덕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찍 운동 겸해서 다녀오곤 했죠. 당시 주지 스님이셨던 법장 스님과 가끔 아침 공양도 하고 좋은 법문도 듣곤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버님을 낙산사에 모셨지요. 당시에 오현 스님이 주지로 계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Q. 마지막으로 불교에서 좋아하는 사상이나 철학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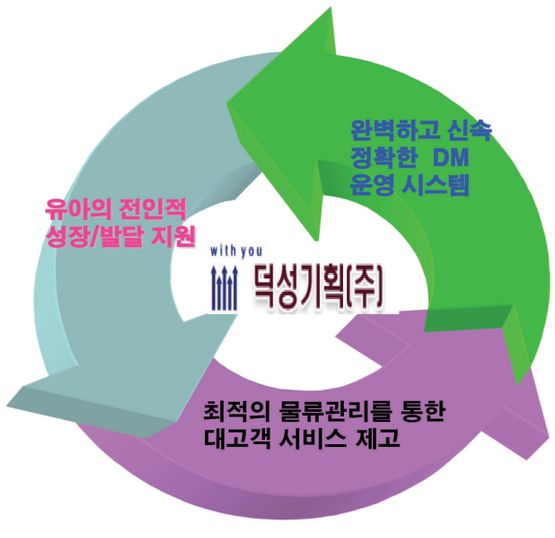
A. 불교는 무엇보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가난하든 부자든 많이 배웠든 아니든 모든 대중을 하나의 같은 중생으로 보는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깨우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깨침을 위해 하는 것이 명상이잖아요. 그래서 강원랜드 사장시절 운탄고도 길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운탄고도가 행선하기 정말 좋은 길이거든요. 살면서 힘든 일이 많잖아요. 걸으면서 잠시나마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불교, 명상의 매력인 것 같아요.

DM사업, 유아교육사업, 물류사업 총아(寵兒)

덕성기획㈜는 금번 ㈜노벨과 개미의 교육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DM 및 물류, 유아교육 사업을 고객의 입장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임하겠습니다.

불기2565(2021)년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미래를 여는 덕성기획(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19번길 87
TEL : (02)2615-0183(대) FAX : (02)2689-3139
www.duksungdm.co.kr
▶ DM사업본부
▶ 물류사업본부
▶ 유아교육사업본부(노벨과 개미)

미래를 여는 (주)덕성C&B
직배사업부 :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직배서비스 운영
TEL : (02)2615-3296(대) FAX : (02)666-3139